

2012 여수엑스포 3년 앞으로

성공 개최 준비 서두르자

심 정부가 나서라

민자유치 부진·조직위장 공백 정부 손놓고 있다간 낭패본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3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다, 박람회 준비를 진두지휘할 조직위원장도 2개월 가깝도록 공석으로 남아있어 박람회 성공개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한국 경제 제도와 지역균형발전의 발판이 될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가운데 관련 기업과 지역사회 등이 총체적인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란 주제로 오는 2012년 5월12일부터 3개월간 여수 신항 일대에서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는 국가적으로 21세기 신해양시대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전남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발판이 되는 만큼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정부는 지난 2007년 11월 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하자마자 조직위원회를 구성, 박람회의 골격인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SOC 확충작업에 나서

는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초대형 아쿠아리움(수족관)과 콘도, 유원시설(놀이시설)을 비롯 여수박람회 성공을 담보할 주요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가 최근 경제위기 여파 등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다, 조직위원회를 이끌어갈 조직위원장도 2개월째 공백상태로 남아있다. 또, 여수박람회 개최시기와 네덜란드 화해박람회 개최시기가 겹쳐 여수박람회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에서는 민자유치 사업 중 박람회장의 ‘랜드마크’로 큰 기대를 모았던 아쿠아리움은 투자하겠다는 사업자가 없어 조직위원회가 국비를 들여 자체적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예산 규모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또 다른 민자유치 사업인 200실 규모의 콘도와 유원시설은 투자하겠다는 사업자가 아예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박람회 타운이 들어설 덕충동 일대 주민들의 보상문제도 장애물로 떠오르고 있다. 1천35가구 2

천800여 명의 주민은 ‘부지보상가가 턱없이 낮다’며 주택공사의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자칫 박람회타운 건설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박람회 준비를 총괄하는 조직위원회도 내부적으로 선장도 없이 불안한 향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4월 조직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위원장으로 임명된 장승우 위원장이 지난달 1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사표를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후임이 결정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려면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인 만큼 ‘실무형’보다는, 현 정부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힘있는’ 위원장이 선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아쿠아리움과 콘도 등 여수박람회 성공개최를 좌우할 대규모 민자유치 계획이 물거품이 되지 않으면서 국비 투입을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총정기자 redplane@kwangju.co.kr



“해산하라” “못한다”

옛 도청 별관 철거를 지지하고 있는 5·18 구속부상자회원들이 10일 밤 별관 점거 농성중인 5·18 유족회·부상자회원들에게 해산에 나서 경찰의 지지선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대치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별관 농성 철수’ 한밤 대치

5·18구속부상자회가 해산 시도 유족회·부상자회와 충돌은 없어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부지내 옛 도청 별관 철거를 지지하고 있는 5·18 구속부상자회원들이 별관을 점거 농성중인 5·18 유족회·부상자회원들에 대한 해산에 나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치했다.

이같은 사태가 빚어짐에 따라 도청 별관을 둘러싼 찬·반 5월 단체들간 불신의 골이 깊어지는 등 갈등과 소모적인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 200여명은 10일 밤 8시께 옛 도청 별관 앞에서 천막 농성중인 5·18 유족회와 5·18 부상자회의 농성장에 들어가 물리력으로 이들을 해산하려 했다.

그러나 충돌에 따른 불상사를 우려한 경찰은 5개 중대 500여명을 별관 주변에 배치해 충돌을 막았다. 이에 따라 구속부상자회원들은 경찰을 사

누구도 이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있어 결자해지 차원에서 5월 단체가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5·18 부상자회 관계자는 “구속부상자회의 이같은 행태는 도청 별관 문제를 푸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을 위한 공대위’에 참여한 농성했던 5·18 구속부상자회는 지난 3월 아시아 문화전당 부지내 별관 철거에 합의한 뒤 농성을 풀었으며, 5·18 유족회와 부상자회는 10일까지 농성을 이어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KSLV-1 명칭공모에서 김순자(여·53·광주 광산구 신창동)씨가 응모한 ‘나로’가 대상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나로’는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이름으로, KSLV-1이 대한민국 국민의 꿈과 희망을 담아 나로우주센터에서 드넓은 우주로 뻗어나 가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이번 명칭공모에서는 태양을 뜻하는 ‘해’와 웅의 옛말인 ‘미르’의 합성어인 ‘해미르’와 대한민국의 얼(훈)을 의미하는 ‘한얼’이 우수상에 당선됐다.

/윤영기·김형호기자 penfoot@



첫 우주발사체 이름은 ‘나로’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KSLV-1 명칭공모에서 김순자(여·53·광주 광산구 신창동)씨가 응모한 ‘나로’가 대상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나로’는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이름으로, KSLV-1이 대한민국 국민의 꿈과 희망을 담아 나로우주센터에서 드넓은 우주로 뻗어나 가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이번 명칭공모에서는 태양을 뜻하는 ‘해’와 웅의 옛말인 ‘미르’의 합성어인 ‘해미르’와 대한민국의 얼(훈)을 의미하는 ‘한얼’이 우수상에 당선됐다.

/강필성기자 kps@

광주·전남 저소득 17,688명 일자리 제공

‘희망근로 프로젝트’ 확정

광주·전남 지역에서 모두 1만7천688명이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사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안전부가 6월부터 시행할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광주·전남도 참여 인원을 각각 7천500명, 1만188명으로 확정함에 따라 이르면 11일부터 참여 희망자들

모집할 예정이다”고 10일 밝혔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정부가 1조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층 실업자, 휴·폐업 자영업자, 여성 가장 등 25만명에게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광주·전남도는 이 사업을 위해 국비에 산을 포함해 각각 511억9천500만원, 695억4천만원원을 확보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6월부터 생활환경 정비, 공공시설물

개보수 등에 투입된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에 월 83만원(교통비 등 하루 3천원 별도) 가량 임금을 받는다.

임금의 30~50%는 신속한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참여 자격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고 재산이 1억3천500만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으로, 실직자와 휴·폐업자 등이 우선 선발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

엘도라도 리조트 명함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당신의 명함을 찾아드립니다

본사 특임 헌팅사원부

EL DORADO

명함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광로 205-1114-1
명함전화: 062-2200-5000

주요책임자: 엘도라도 리조트에 투숙하는
네게 최고리조트 명함을 프로젝트에 도전 하십시오!
명함에 당신을 기다립니다.

본사 직영으로 높은 선봉성과 경쟁력을 확보합니다.

모집요강

- ▶ 모집부서: 본사 특임헌팅사원부
-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AM 10:00-PM 5:00)
- ▶ 지원자격: 20세~, 남·여(성별 불문), 주부시도 환영
- ▶ 급여: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
- ▶ 채용서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학력증명서
- ▶ 채용방법: 본인 직접 내사 또는 센터
- ▶ 근무처 및 근무지: 광주·전남 지역(17개) 및 전국(10개) 등 전국 27개 지점(광주·전남·전북·전라·충청·경남·제주)
- ▶ 문의: ☎ 0621718-5000